

조한 두 민족 여성이 이어온 반세기의 우정

—조선족 여성 박영옥과 한족 여성 류아광의 50 년 우정 이야기



조선족 여성 박영옥 (왼쪽) 과 한족 여성 류아광

김림성 안도현에 살고 있는 조선족 여성 박영옥과 강서성 상요시에 살고 있는 한족 여성 류아광 (刘亚光)은 지금으로부터 50 여년전 병실에서 아주 짧은 만남으로 면목을 익힌 사이지만 반세기를 넘는 세월 속에서도 그 우정이 조금도 색바래지 않고 지금까지 따뜻한 민족우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1 년전인 1973 년 2 월, 당시 18 살 밖에 안된 박영옥은 소아마비후유증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다리를 치료하려고 혼자서 장준으로 병보이러 떠났다. 장준에는 소아마비후유증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된 208 병원이 있었는데 전국 각지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이었다. 병실마다 10 명씩 입원해 있었는데 박영옥이 입원한 병실에는 그녀 혼자 조선족이었다. 수술은 4 월 2 일로 정해졌는데 아침에 의사가 들어오더니 돌연 수술이 6 일로 미루어졌다고 알려주었다. 의사의 말을 듣자 박영옥은 저도 팔레 올음이 터져나왔다. 집을 떠난 지 한달도 넘는데 그동안 집 생각에 눈물로 베개잇을 얼마나 적셨는지 모른다. 병원의 한달 식비가 10 원 정도이고 침대비는 하루에 20 전이었으니 집에서 있는 돈을 다 모아 30 원을 부쳐왔다. 돈을 아끼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는 엄마의 사랑 담긴 편지도 함께 보내왔다.

당시 박영옥의 아버지 한달 로임이 겨우 32 원이었으니 그녀의 병치료 때문에 집에 있는 일곱식구의 생활은 또 여기저기서 꾸어서 영위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박영옥은 나흘을 더 기다릴 수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고 퇴원해야 집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흘후에 수술하면 예상외로 침대비 80 전을 더 팔게 되고 밥도 열두끼니 더 사먹어야 하니 그만큼 돈이 더 들 게 불보듯 뻔했다. 박영옥은 아침도 거른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기 시작했다. 출근한 의사가 병실에 들어갔다가 울고 있는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했다.

“애야, 수술 날자를 미루게 된 건 6 일날에 북경영화촬영소에서 영화 찍으러 오는데 그날 현지 촬영에 너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란다. 얼굴도 예쁘장하고 또 소수민족이어서 특별히 배려하는 거니 너도 협조해주렴...”

그때 전날 다른 병실에서 박영옥이 들어있는 병실로 옮겨와 그녀 옆 침대에 입원한 강서성 상요시에서 왔다는 류아광이 그녀를 보고 의사 말대로 하라고 한마디 권고했다. 그러나 박영옥은 세차게 머리를 흔들면서 더 크게 울어댔다.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사람처럼 걷고 싶기도 했다.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었다. 집에서 부모님과 동생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영화 촬영 때문에 날자를 미루면서 죽치고 병원에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만이 온통 머릿속에 가득차 있었다.

박영옥의 딱한 사정이 안스러웠던 지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그림 당장 수술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제야 박영옥은 눈물을 닦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3 시간이나 되는 긴 수술을 받고 병실에 돌아와 보니 박영옥의 침대 우에는 사과꾸레미가 놓여져있었다. 누군가? 의아한 마음에 알아보았더니 옆자리 침대에 입원한 류아광이 그녀를 먹으라고 사다 놓은 것이었다. 환자들이 수술후면 모두 사과를 먹었는데 그때 박영옥은 돈을 아끼느라고 사과 한알도 살 엄두를 못 냈다. 그녀의 속마음을 눈치챈 그녀가 초면인 박영옥의 신세가 가궁하게 여겨져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것이었다. 박영옥은 류아광의 따뜻한 관심에 잠간이나마 수술후의 통증도 사라지는 것 같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다. 수술하기 전날에 꽃면목을 익히긴 했지만 한어말이 익숙지 못한 박영옥은 그녀와 말도 몇마디 변변히 나누지 못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곤 했다. 류아광은 열흘간 박영옥이와 한병실에 있으면서 많은 도움을 주다가 다른 병실로 옮겨갔다. 그래서 자주 볼 수 없었다. 7 월달에 퇴원할 때 그녀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류아광이 너무 고마워 작별인사를 하러 찾아갔다.

“우리 앞으로 그냥 좋은 친구로 보내주세요. 난 조선족들에 대해서 호기심이 아주 많았는데 이번에 조선족 친구를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나도 마음 착한 한족 친구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요.”

박영옥과 류아광은 서로 따뜻이 껴안으면서 서로서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영옥과 류아광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입은 류아광의 딸

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는 이같이 친인처럼 따뜻이 배려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코등을 쫓하게 했다. 당시 박영옥은 학생신분이었지만 그녀와 동갑내기인 류아광은 이미 어느 단위에 출근하고 있었다. 류아광은 한족 발뒤축을 들고 걸어야 하는 장애인이었다. 보통키에 통통한 몸매인 류아광의 눈과 입가에는 늘 미소가 어려웠었다.

수술하던 날 박영옥의 고모가 저녁에 퇴근하여 밤새 병간호를 해주었다. 첫날은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는데 고모도 한숨도 못 쉬고 함께 밤을 지새웠다.

이튿날, 두 눈이 벌겍게 되어 지쳐 있는 고모를 보고 병실의 환자들은 자기들이 옆에서 번갈아 간호해줄 테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특히 류아광이 더 적극적이었다. 소변을 받아낸다, 사과를 깎아준다 하면서 박영옥의 옆에서 바빠 돌아눕었다. 같은 또래지만 언니를 방블게 하는 그녀의 살뜰한 보살핌에서 박영옥은 고통이 무마됨을 느꼈고 수술로 지친 마음도 위안을 얻게 되었다.

수술후의 아픔은 박영옥이를 무척 괴롭혔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입술을 깨물어든 눈물이 저절로 나왔다.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러면 류아광이 다가와

은 편지로 래왕했다.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마음을 주고받고 문화교류도 하고 선물도 교환했다. 비록 짧은 문안과 삶의 일상이 담긴 평범한 편지들이었지만 장애를 극복해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이어서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서로서로 삶에 대한 신심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박영옥은 류아광에게 조선족들이 즐겨 먹는 고사리를 보내준 적이 있다. 조리법도 알려주었는데 류아광은 그 조리법대로 요리를 했더니 아주 맛있었다면서 조선족 음식을 무척 긍정하고 치하했다.

그후 류아광은 결혼해서 딸애를 낳았는데 조선족 치마저고리가 너무 이뻐서 딸애한테 입혀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조선족 민족복장이 이렇게 타민족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해서 자호감을 느낀 박영옥은 지체할새라 인차 분홍색 치마에 색동저고리 한 벌을 사서 류아광에게 부쳐보냈다. 그러자 류아광은 딸애에게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입히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딸애가 워낙 귀엽게 생긴 데다 이쁜 치마저고리까지 입혀놓으니 더구나 이쁘고 귀여웠다.

류아광의 딸애가 커서 소학교에 가게 되자 그녀는 또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딸애에게 입혀보고 싶어했다. 그때

서 또 치마저고리를 사서 부쳐보냈는데 딸애가 다른 옷은 안 입고 그냥 치마저고리만 입고 학교로 다닌다는 것이었다. 옷이 어지러워져 세탁할 때면 학교에 안 가겠다고 생떼를 쓴다고 하니 조선족 치마저고리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이 틀림없었다.

한번은 류아광이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입힌 딸애를 데리고 백화상점에 갔는데 술한 사람들이 연변에서 온 조선족인가고 묻더라. 80 년대에는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만나는 일이 연변과 멀리 떨어진 강서성에서는 그만큼 매우 희소했던 것이다. 그후 류아광의 딸애가 초중에 가게 되자 박영옥은 또 애에게 맞는 치마저고리를 사서 부쳐주었다.

류아광 역시 받기만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다. 자지방에서 나오는 특등 룽차도 수없이 박영옥에게 보내주었고 항주에서 나오는 비단천도 사서 보내주었다. 어느 한번은 어려운 생활에 보내라고 돈까지 부쳐온 적도 있다.

박영옥은 류아광에게 선후하여 조선족 치마저고리 세벌을 보내주었다. 아가때 옷과 소학교에 다닐 때, 중학교에 다닐 때 옷 이렇게 시기시기 보내준 것이었다. 그런데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류아광의 외손녀까지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입으면서 자랐다. 어릴 때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입고 자란 류아광의 딸이 커서 딸애를 낳았는데 그가 또 딸애게 조선족 치마저고리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사입했다는 것이다. 박영옥은 조선족 민족복장이 멀리 타민족에게서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또 사랑받은 일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류아광은 늘 한가지를 후회하고 있었는데 바로 박영옥과 함께 있을 때 조선말을 조금이라도 못 배워둔 것이란다. 비록 타민족이지만 조선족 언어와 복장에 그렇게도 마음이 끌리고 관심이 많은 것이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서 처음 만났을 때 10 대 후반 처녀들이던 박영옥과 류아광도 어느덧 얼굴에 주름 잡힌 70 대 로인으로 되었다. 1973 년 4 월에 장준에서 만나고 헤어진 후로 두 사람은 50 년이 넘도록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 나이가 들고 얼굴 모습도 변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한 관심은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다. 두 여성은 오랜 세월을 편지거래로 우정을 나누다가 위챗이 생긴 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더구나 연락이 잦다. 지금도 류아광은 박영옥이 거둔 문학창작 성과들을 기뻐해주고 늘 건강을 축원해주고 있으며 또 박영옥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몇년전부터 류아광은 노독증으로 앓고 있지만 언제 봐도 한탄과 포기를 몰랐고 늘 밝고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서 박영옥에게 영향주고 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 않고 또는 오래동안 갈라져 있으면 그 정이 식어가고 메말라들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다르고 수천, 수만리 떨어져 살고 있는 두 민족 녀성의 끈끈한 우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박영옥은 류아광과의 지난 50 여년간의 우정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장애의 몸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한 긍정적인 삶의 동력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열흘간이란 아주 짧디짧은 시간에 얼굴을 익히고 또 스쳐가듯 맺은 우정이지만 영원한 친구로 살아가자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장장 50 년 세월을 서로 상대를 관심하고 따뜻한 우정을 주고받고 있는 두 사람,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든든히 다져가는 요즘 두 민족 녀성이 이어가는 민족우정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넘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민족단결의 따뜻한 이야기로 승화하고 있다.

/ 안상근기자

민들레문화교류협회, 민족문화교류협회로 새 출항

8 월 4 일, 연변민족문화교류협회 새 명칭 공개식이 연길시한성호텔에서 거행된 가운데 원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문화교류협회라는 새 명칭으로 민족문화교류의 새 출항을 시작했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는 2003 년 3 월 28 일에 주문화라지호텔레비준방송및관광국과 주민정국에 등록을 마친 비영리성 사회단체이다. 협회는 산하에 회원활동부, 청소년교육부, 문화활동부, 사회사업부가 있는데 설립 이래 당과 정부의 지도 아래 민족단결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적극 참여해오면서 빈곤부족사업, 취약계층과 불우한 아동 돕기, 사회봉사활동 및 생태환경미화, 문화예술발전 등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협회는 아이들에 대한 무료사랑 나누기 활동을 펼쳐 여러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여 대학생으로, 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배출시켰다. 협회 산하의 평산민들레민속예술단은 2018 년에 설립되어 4 년여 만인 2023 년에 유일한 아마추어팀으로 연변을 대표해 김림성소수민족문예콩쿠르에 참가, 전 상에서 온 여러개 전업단체를 물리치고 22 개 공연 프로중 2 등상을 받았으며 국가문화부에서 주최한 전국 소수민족원생대민가 (原生民歌) 교류공연에서 무형문화유산인 통소 공연을 펼쳐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는 물론 국가급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변민족문화교류협회 회장 최옥금은 환영사에서 “오늘 협회는 더 폭

넓은 사업 전개와 문화 발전을 위하여 명칭을 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문화교류협회로 개칭하였다. 협회의 명칭 변경은 새 출항을 꿈꾸는 우리 전체 회원들의 희망과 신념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협회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무형문화유산 발굴과 전승 등 다양한 문화활동과 불우이웃 돕기 등 애심공의 행사를 펼치고 여러 민족 문화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실제 행동으로 문화예술사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주민정국 사회조직관리국 국장 채송학은 축사에서 “협회의 개칭을 축하한다. 협회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문화 발전을 위해 실제적인 기여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림대학 예술학원당위 서기이며 협회 예술고문인 제월연 (齐月衍)은 “협회는 호혜상생의 원칙과 공동발전의 원칙을 견지해오며 문화 발전과 교류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오늘 개칭을 통해 더 높은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회 명예회장 신미화는 “앞으로 회원간의 사랑과 단결을 도모하고 더 많은 유익한 사회활동과 실제적인 일들을 하여 더 높은 단계로 협회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으로 협회 예술단의 다채로운 문예공연이 펼쳐지면서 현장은 환락의 분위기로 들끓었다.

/ 리전기자

왕청현 동광진 오인반촌에 오대징기념비 섰다



오인반촌 촌부 앞에 세워진 오대징기념비

청나라 후기 고급관원 (1 품) 이며 민족영웅인 오대징 (吴大澂, 1835-1902)은 유명한 금석학자 (金石学家)이며 서화가이다. 그는 1880 년부터 1886 년까지 길림청덕 (关清德)의 집에서 하루밤을 묵었는데 그때 관청덕에게 ‘청락향’ (清乐乡)이라는 편액을 써주었다고 한다. 두번째는 1886 년 (광서 12 년) 2 월 29 일에 천전에 서 떠나 훈춘으로 가는 도중에 오인반역에 들렀는데 관청덕이 새로 지은 ‘청락향’에 묵어갔다고 한다. 관청덕은 낚시를 들고 가야하에 달려가 세리어 두마리를 낚아 오대징을 접대하였는데 흥이 도도해진 오대징이 당장에서 극진한 대접에 감사하다는 뜻의 칠언절구를 써서 답사하였다고 한다.

오인반촌은 왕청 시가지와 동광진정부 사이에 위치해있다. 이 촌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관유 (관족, 54 세)씨는 자기는 관청덕의 4 대손이라고 하면서 2019 년 7 월 17 일에 오대징의 현손 오원경 (상해해파서회원 원장, 오대징기념관 명예관장)이 고조 할아버지가 걸은 ‘황화기정’ (皇华纪程)을 다시 걸으면서 오인반촌을 다녀갔다고 소개했다.

관유는 오인반촌의 력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 오대징의 황화기정을 주제로 한 애국주의교양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표

를 세웠다.

기록에 의하면 오대징은 1880 년 (광서 6 년) 11 월 28 일에 길림에서 념안을 경유하여 훈춘으로 가는 도중에 오인반역에 들러 관청덕 (关清德)의 집에서 하루밤을 묵었는데 그때 관청덕에게 ‘청락향’ (清乐乡)이라는 편액을 써주었다고 한다. 두번째는 1886 년 (광서 12 년) 2 월 29 일에 천전에 서 떠나 훈춘으로 가는 도중에 오인반역에 들렀는데 관청덕이 새로 지은 ‘청락향’에 묵어갔다고 한다. 관청덕은 낚시를 들고 가야하에 달려가 세리어 두마리를 낚아 오대징을 접대하였는데 흥이 도도해진 오대징이 당장에서 극진한 대접에 감사하다는 뜻의 칠언절구를 써서 답사하였다고 한다.

오인반촌은 왕청 시가지와 동광진정부 사이에 위치해있다. 이 촌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관유 (관족, 54 세)씨는 자기는 관청덕의 4 대손이라고 하면서 2019 년 7 월 17 일에 오대징의 현손 오원경 (상해해파서회원 원장, 오대징기념관 명예관장)이 고조 할아버지가 걸은 ‘황화기정’ (皇华纪程)을 다시 걸으면서 오인반촌을 다녀갔다고 소개했다.

관유는 오인반촌의 력사문화자원을 잘 활용하여 앞으로 오대징의 황화기정을 주제로 한 애국주의교양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표

시하였다.

/ 김태국기자